정글의 법칙

사마귀 생태에 관한 두 번째 보고서

草

지난번에 썼던 첫 번째 보고서는 자연 상태에 있는 사마귀에 대한 관찰 결과였다. 그러나 자연상태에서는 정작 내가 궁금해하는 장면을 볼 수가 없기에 어제 처음으로 사마귀를 잡아다 휴지통에 넣고, 위에 투명유리를 덮은뒤 하루 종일 관찰하였다. 관찰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 놈들의 식사 행위와 교미 모습을 가까이 보기 위해서이다.

플라스틱 통에 먼저 암컷 큰 것 한 마리와 수컷 큰 것 한 마리, 그리고 수컷 작은 것 두 마리를 함께 넣었다. 사마귀 먹이로는 거미를 중치 한 마리, 작은 것 한 마리를 넣어 주었다. 그들에겐 안 된 일이자만 정말 지옥 같은 환경을 만들어 준 거지.

지난 편지에 내가 사마귀의 용맹성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었는데, 이번 관찰 결과 그것을 수정한다. 사마귀는 정말 용맹무쌍하고 겁을 모르는 놈이다. 때로는 정말 무모하리만치 만용을 부리기도 한다. 당랑거철이란 옛말이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다. 먼저, 작은 거미는 내가 한눈파는 사이에 잡아먹어 버려서 어떤 놈 짓인지 잘 모르겠으나 다 먹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작은 놈 짓으로 추측했다. 큰 놈은 다리까지 알뜰하게 먹어치우거든. 중치 크기의 거미는 틀림없이 큰 사마귀에게 잡혀 먹으리라 예상했는데, 이것이 엉뚱하게도 작은 놈에게 먹혀 버리고 말았다. 작은 사마귀 한 놈이 자기 머리통보다 서너 배는 큰 거미를 앞발로 덥석 잡더니 발버둥치는 것도 아랑곳 않고 거미 똥구녕에 머리를 박고는 다짜고짜로 파먹더라구. 한 절반쯤 파먹었을까, 고만큼만 먹어도 배가 부른지-덩지가 작으니 그럴밖에-고개를 쳐들더니 휙 던져 버리더라구. 거미는 바닥에 떨어져 잠시 발버둥치더니 그만 잠잠해지더군. 작은 사마귀라고 결코 얕잡아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리하여 거미를 잡아먹고 의기양양해진 이놈이 갑자기 펄쩍펄쩍 뛰더니 자기 몸의 세 배나 되는 암놈 등에 턱하니 올라타는 것이었다. 덩지 차이가 얼마나 크던지 마치 고목나무에 매미가 달라붙은 형상이었다. 그런데도 작은 놈은 지가 수컷이라고 암놈 등위에 찰싹 붙어서는 계속 유혹의 몸짓을 해 대는데 옆에서 보기에도 가관이더라구. 내가 봐도 도저히 매치가 될 것 같지 않은데 작은 놈은 끈질기게 자신의 꼬리를 꼬부려 암컷 배에 부벼 대는 거야. 아니나 다를까, 암놈은 우습지도 않다는 듯 문을 열어 주지 않더군. 이것으로 보아 이놈들의 교미도 암수가 사인이 맞아야 이루어진다는 걸 알았다. 참고로, 사마귀의 교미는 수컷이 등위에 올라타서 꼬리를 갈고리 모양으로 구부려 암놈의 꼬리 끝부분 옆으로 다가가는데 이때 암놈의 성기가 벌어지면 그리고 삽입하여 이루어진다. 암놈이 생각이 없으면 꼬리 끝부분이 한사코 열리지 않는다. 이 교미 방식은 사마귀뿐 아니라 모든 메뚜기류가 다 같다.

결국 쬐꼬만 수놈이 하다하다 안 되니까 내려오더군. 그동안 정면에서 한 시간 가까이 이 장면을 노려보고 있던 큰 수놈이 드디어 기회가 왔다는 듯 성큼성큼 다가가더니 암놈 등에 올라탔다. 예의 똑같은 유혹의 동작을 거듭하기 10여 분, 암놈은 자기와 어울리는 쌍이라고 생각했는지, 조심스럽게 꼬리 끝을 벌리더라구. 드디어, 삽입. 내가 지난번 편지에 사마귀의 교미 시간을 4~5시간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수정해야겠다. 어제 이놈들 교미하는 것 들여다보다가 내가

아주 지쳐 버리고 말았다. 아침 10시에 시작한 일이 하루 종일 지나 저녁 8시에야 끝이 난 거야. 무려 10시간을 붙어 있었던 것인데, 중간에 꼬리를 풀고 두 번을 쉬기는 쉬더군. 게다가 암놈은 내가 밥먹느라고 한눈파는 사이에 교미 상태에서 사마귀 작은 놈 하나를 작아먹었는지 나중에 와 보니 앞다리하고 날갯죽지만 떨어져 있더라구. 징헌 놈들!.

저녁 8시쯤에 이제 할 만큼 했는지 수놈이 암놈 등에서 내려왔다. 교미가 끝나면 보통 암컷이 수컷을 잡아먹는데, 이 경우는 상황이 좀 달랐다. 암놈은 이미 교미 중에 식사를 '드셨고', 또 수놈의 덩지가 워낙 커서 잡아먹힐 정도가 아니었다. 문제는 이 수놈이었다. 하루 종일 암놈 위에서 용을 썼으니 얼마나 허기지고 피곤하겠어? 아니나 다를까, 암놈 등에서 내려오자마자 하나 남은 사마귀 작은 놈을 덥석 덮치더니 모가지부터 아작아작 씹어 먹더라구. 목 부분을 다 먹더니 다음엔 머리통을 다 먹고, 배 부분은 절반쯤 먹다가 버리더군. 진짜 끔찍했지. 어떻게 저렇게 자기 동족을 서슴없이 잡아먹을 수 있는지..... 내가 알기로도 자기 종족을 잡아먹는 것은 생물계 내에서도 아주 희귀한 일인데, 이 사마귀란 놈들은 특이한 멘탈리티를 지니고 있는 것 같아. 어쨌거나 어제 저녁 플라스틱 통 안에 정글의 법칙이 정확히 적용된 결과 힘세고 덩지 큰 사마귀 암수 두 마리만 살아남게 되었다.

오늘 나는 이놈들에 대해 볼 것을 다 보아 버렸으므로 더 이상 괴롭힐 이유가 없어 모두 밖으로 날려 보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사마귀 알이 정력제로 사용된다는 것이다. 한방에 의하면 뽕나무에 슬어 놓은 사마귀 알은 아주 잘 듣는 정력제라 한다. 글쎄, 자고로 교접 시간이 터무니없이 긴 동물들 뱀 따위의 알이나 장기 일부가 강장제로 쓰이곤 하는데, 일부에서는 이것을 말도 안되는 속설이라고 일축하기도 하지. 즉 그것들이 장시간 교접하는 것은 정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특이한 생체구조 상 그 정도의 시간이 경과되어야 비로소 수정이 된다는 것이지. 그도 그럴 것이 새들의 교접을 보면 단 몇 초 동안 비벼 대는 사이에 수정이 이루어지거든. 심지어 어떤 동물은 직접 삽입하지 않고도 수놈이 곁에서 슬쩍 마찰만 해 주어도 수정이 되는 것도 있다.

생물들의 성행위에는 참으로 재미있는 것이 많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음양의 접합이라는 점에서 식물이나 동물이나 인간이나 똑같다. 원리적으로 그럴 뿐 아니라 생체구조적으로도 그렇다. 최근에 〈〈Sex in Nature〉〉란 책이 번역되어 나왔다 하는데 이를 읽고 나면 여러 가지로 깨닫는 바가 많을 것 같다. 그땐 더욱 재미있는 얘기를 해 줄께. 이젠 거미와 사마귀와도 '바이바이' 야. 거미는 사마귀가 다 잡아먹었고, 사마귀는 질려서 다 쫓아 버렸으니까.

1955년 서울생. 서울농대를 졸업하고 뉴욕 소재 사회과학대학원(New School for Social Research)에서 제3세계 정치학을 공부하던 중, 학원 간첩단 사건에 연루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001년 6월 8일 MBC〈이제는 말할 수 있다〉를 통해 국가기관에 의한 조작극이었다고 사건의 진상이 세상에 널리 밝혀졌지만, 그때는 이미 그가 서른이던 1985년 마흔네 살이 될때까지, 13년 2개월 동안의 황금 같은 청춘을 감옥에서 보낸 후였다. 감옥 안에서 야생초 화단을 만들어 100여종에 가까운 풀들을 심어 가꾼 이야기를 책으로 펴내 대중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현재 생태공동체운동가로 활동중이며('생태공동체운동센터 www.commune.or.kr), 저서에 「야생초 편지」(도솔,2002), 「백천간두에 서서: 공동체 시대를 위한 명상」(사회평론, 1992), 「꽃보다 앍다운 사람들: 양심수 황대권의 유럽인권기행」(두레, 2003)와 역서 「가비오따스」(말, 2002)가 있다.